

보도시점 2026. 6. 29.(월) 11:00
6. 30. (화) 조간

배포 2026. 6. 29.(월) 09:00

민관협력을 통해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 지원' 추진

- 농어촌상생협력기금NH투자증권과 협업,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 정선, 청양, 순창, 장수, 신안, 영양, 남해 등 7개 군에서 하반기 사업 운영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민간과 협력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대상으로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이 농식품부와 뜻을 같이하여 식료품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10억원을 출연하면서 추진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중 7개 군*과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NH투자증권과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간 협약 체결을 지원하였다. 농촌지역의 식품사막화 대응을 위해 기금 사업에 참여한 7개 군은 NH투자증권에서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7억원(군당 1억원)과 함께, 지방정부 자체 자금도 활용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 정선, 청양, 순창, 장수, 신안, 영양, 남해

7개 군 중 6개 군은 각 마을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는 이동장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1개 군(남해)은 공공 배달앱을 활용한 주문배달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구분	해당 지역	운영방식 설명
이동형	순창군 영양군 정선군	소매점이 없는 사각지대 마을을 냉장·냉동 탑차가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현장에서 직접 물품을 판매하는 움직이는 장터 모델
주문배달형	남해군	공공배달앱을 활용해 수요를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집 앞이나 경로당까지 당일배송 또는 정기배송 모델
혼합형	신안군 장수군 청양군	이동식 차량 판매를 기본으로 하되, 사전에 접수된 물품을 각 가정에 개별 배송하는 서비스를 병행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모델

각 군은 차량 구입·개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의 지역화폐 소비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을 후원한 NH투자증권 윤병운 대표이사는 “포용적 금융이란 수익을 내는 것을 넘어, 금융의 힘이 닿지 않는 곳까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농업·농촌과 함께 상생하는 금융회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추가로 선정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에 대해서도 NH투자증권에서 출연한 기금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 지원사업’을 수행할 지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민간기업의 사회공헌이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의 부족한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는 데 의미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업의 운영주체로 지역활성화재단, 지역자활센터, 농촌 공동체조직 등이 참여할 예정으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2026년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송재원 (044-201-1571)
		담당자	사무관	이아름 (044-201-1576)
담당 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	책임자	부 장	이종원 (02-368-8961)
		담당자	과 장	추지은 (02-368-8923)



□ 사업명 : 농촌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 지원 사업

□ 지원사항: 농어촌상생협력기금* 7억원(군당 1억원)

* 출연기업: NH투자증권

□ 참여지역: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7개군*

* 정선, 청양, 순창, 장수, 신안, 영양, 남해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10개군 중 3개군은 기금과 별개로 자체 추진 예정

□ 사업내용: 지리적 특성과 기존 인프라 고려, 지역 맞춤형 식품 전달 체계 구축

구분	해당 지역	운영방식 설명
이동형	순창군 영양군 정선군	소매점이 없는 사각지대 마을을 냉장·냉동 탑차가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현장에서 직접 물품을 판매하는 움직이는 장터 모델
주문배달형	남해군	공공배달앱을 활용해 수요를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집 앞이나 경로당까지 당일배송 또는 정기배송 모델
혼합형	신안군 장수군 청양군	이동식 차량 판매를 기본으로 하되, 사전에 접수된 물품을 각 가정에 개별 배송하는 서비스를 병행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모델

□ 추진 일정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대상 기금 참여 수요조사(2월)
-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 지원사업 군별 세부추진계획 수립(4월)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심의조정위원회 심의·의결(4월)
- 기금 집행을 위한 사전 절차 추진(5~6월)
- 기업-재단-수행기관 협력 체결 및 기금 집행(7월)
- 차량구입·개조 및 사전 홍보(7월~)
- 7개군 찾아가는 식품서비스 제공 및 추가지역 선정('26.下)